



수행의 길잡이 선가귀감

<60> 세상의 명성과 이익을 좇는 어리석은 스님

보통 선가(禪家)에서 많이 쓰는 말로 '운수납자(雲水衲子)'라고 하는 표현이 있다. 세상의 명예와 이익에 눈길 한 번 주는 법 없이 떠도는 구름처럼 흐르는 물결처럼 거칠없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스님들을 이렇게 부른다. 이런 삶을 사는 수행자를 '할 일 없는 도인'이라고 하니, '운수도인(雲水道人)'이라 말하기도 한다. 또한 한가로운 삶 속에서 상급하고 맑은 바람처럼 모든 사람에게 시원한 청량감을 줄 수 있는 분이므로 '청풍납자(淸風衲子)'라고 말하기도 한다. 반대로 이런 본디 모습을 망각하고 분수에 넘치게 세속의 명예와 이익을 좇아 세상살이에 연연하여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람을 '명리납자(名利衲子)'라고 한다. <선가귀감> 60장에서 말한다.

웃이란 세상 사람처럼 신분과 부귀를 드러내어 뽐내는 허영의 도구가 아니다. 누더기 옷을 입고 산속에서 고행하며 겸박한 삶으로 오로지 수행에 힘쓰며 살아가는 스님네를 세상에서 존경하는 의미로 '납자'라고 부른다.

누더기 옷 한 벌만 걸치고 떠도는 구름처럼 흐르는 물결처럼 사방으로 눈 밝은 선지식을 찾아다니면서 공부하는 수행자의 모습은 아름답다. 이와는 반대로 자기 본 모습을 망각하고 분수에 넘치게 세속의 명예와 이익을 좇아 사

행자가 따라야 할 영원한 규범이다. 그런데 말세에 양질호피(羊質虎皮)와 같은 겉과 속이 다른 무리들이 부끄러움도 모르고 세상에서 바람몰이 세력을 좇아 아첨하고 잘 보이려고만 애를 쓰니 아! 잘못된 그 모습을 너무 참지이다. '타금륜입설산(唾金輪入雪山)'은 '황금바퀴로 굴러가는 수레에 침을 뱉고 설산에 들어갔다'는 뜻이다. '금륜(金輪)'은 황금바퀴로 굴러가는 수레인데 온 천하를 통일한 전륜성왕만이 타고 다닌다. 이 수레에 침을 뱉었다(唾)는 것은 천하를 호령하는 전륜성왕의 높은 자리도 도(道)를 닦기 위해서 어떤 미련도 없이 버렸다는 것이니, 이는 왕의 부귀영화보다 부처님의 세상이 더 좋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설산(雪山)'은 눈 덮인 히말라야 산이다. 전통적으로 인도에서는 도를 닦기 위하여 수행자들이 이 산으로 들어간다고 한다. 석가모니 부처님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님이 그리

람의 마음씀씀이가 바뀌지 않으면 겉으로 제아무리 수행자처럼 잘 꾸며도 사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다. 마음의 본바탕이 맑고 깨끗하지 못한데 부처님의 가사와 장삼을 걸치고 거룩한 수행자처럼 살아가면 거짓된 위선자일 뿐이다.

집집에서 말하는 수행자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맑고 깨끗하게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그 삶 자체는 맑고 깨끗하여 주어진 출가자의 삶에 만족하고 세상의 헛된 욕망을 추호도 끄달림이 없이 정진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부끄러움도 모르고 [不識廉耻] 세상 권력을 좇아[望風隨勢] 그들에게 아부하고 아첨하며 살아가는 삶을 좇는다면[陰媚取寵] 이런 사립들이야말로 양질호피와 똑같은 무리들이다. 진정한 수행자라면 이런 모습을 너무치고 고쳐나가야 할 것이다(其德也夫). 서산 스님은 말한다.

心染世利者 阿附權門 趨走風塵 返取笑於俗人 此衲子以羊質 證此多行.

수행자라도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위선자

세상의 헛된 욕망에 끄달림 없이 정진해야

名利衲子 不如草衣野人.

세속의 명예와 이익을 좇는 수행자는 허름한 옷을 입고 사는 산골사람만도 못하느니라.

수행자로 풀이한 '납자(衲子)'는 낡은 누더기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이다. '납(衲)'은 낡은 천을 더덕더덕 기워서 만든 누더기 옷을 말한다. 세상에서 쓰다버린 낡은 천 조각들을 여러 개 이어 옷을 만들었다 보니 그 조각이 천의 숫자가 많아 졌으므로 '백납의(百衲衣)'라 말하기도 하고, 천 조각이 많다보니 여러 가지 색깔이 어울려 오색(五色) 천으로 만들어 진 옷이 됨으로 '오납의(五衲衣)' 또는 오색의(五色衲衣)라 말하기도 한다.

이런 옷차림에서도 스님네의 진솔한 삶을 엿볼 수 있다. 세상의 명예와 이익을 지푸라기처럼 던져버린 수행자에게

치스럽게 사는 수행자를 '명리납자'라고 한다. 이런 사람의 모습을 원호 스님은 "수행자가 비단 옷을 입는 것은 개가 코끼리 가죽을 덮어 쓰는 것이요 도인이 명예와 이익을 생각하는 것은 고슴도치가 빠져나오지 못할 쥐구멍에 들어가는 것(行者羅網은 狗狹象皮요 道人戀纒는 婦入鼠窟)"이라고 말하였다. 공부길을 벗어난 명리납자는 허름한 옷을 입고 사는 산골사람만도 못하기에 서산 스님은 말한다.

唾金輪入雪山 千世尊 不易之軌則 末世羊質虎皮之輩 不識廉耻 望風隨勢 陰媚取寵 嗚 其德也夫.

왕이라는 높은 자리도 버리고 히말라야 설산에 공부하려 들어가는 일은 모든 부처님이 본받았던 바퀴질 않을 수

하셨다고 한다. '천세존(千世尊)'은 '천 명의 세존'이란 뜻이지만 사실 모든 부처님을 말한다. 이런 모습을 본받지 않으므로 부처님 안 계시고 부처님의 법도 세간에서 사라져 참 불법을 배우기 어려운 '말세(末世)'에 이르러서는 '양질호피(羊質虎皮)'와 같은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 무리들이 나타난다.

양질호피(羊質虎皮)를 풀이하면 '양의 성질과 호랑이 가죽'이라는 말이다. 이 말은 중국 한(漢)대의 양웅(揚雄)이 지은 <법언(法言)>에 나오는 말이다. 순한 양이 커다란 호랑이 가죽을 덮어쓰고 호랑이 흉내를 냈지만, 풀을 보면 풀을 뜯어먹었고 승냥이를 보면 승냥이가 무서워 발벌 뿔었다는 이야기에서 나왔다. 양의 본질을 바꾸지 못한 채 호랑이 가죽만 뒤집어쓰는 것은 진짜 호랑이가 될 수 없다는 의미로 쓰인다. 출가한 사

세상의 잇속에 마음이 물든 수행자 권력에 아부하여 바람에 흩날리는 먼지처럼 헛된 삶을 따라 다닌다면 도리어 세속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이런 수행자는 겉보기에는 호랑이 같을지라도 그 바탕이 양처럼 어리석으니, 이는 이 말을 증명할만한 수행자의 잘못된 행실들이 과거에 많이 있었기 때문이다.

양이 커다란 호랑이 가죽을 덮어쓰고 호랑이 흉내를 내어도 호랑이가 될 수 없으니 그 속내를 아는 세상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옛 글에 "그 누가 알겠느냐? 흰 누더기 속에 은 누리를 밝게 비출 태양이 숨어 있는 것을! [수지백납천장리(誰知白衲千瘡裡) 삼족금오철천비(三足金烏徹天飛)]"라는 말이 있다. 이것이야말로 누더기를 입고 살아가는 운수납자의 참모습이 아니겠는가?

■ 원순 스님(송광사 인월암)

권경희의 상담심리학과 불교 <2>



인간관

상담심리학은 크게 세 가지 조류로 나뉜다. 그 최초의 세력이 19세기 후반에 프로이트가 창시한 정신분석, 두 번째 세력이 파블로프와 스키너 등의 학습이론을 심리치료에 도입한 행동주의, 세 번째 세력이 로저스가 창안한 인간중심적 접근이다.

이 세 가지 접근은 심리 상담에 접하는 방식도 각각 다르지만 무엇보다 상담의 대상인 내담자, 즉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정신분석학에서는 인간을 비합리적이고, 결정론적인 존재로 가정한다. 인간의 행동이란 기본적인 생물학적 충동과 본능

과 의지적 선택을 어느 정도 강조했다. 인간중심주의에 와서야 인간은 좀 더 '인간적'으로 되었다. 로저스는 인간이란 유기체는 자체적으로 고유한 가능성을 갖고 있으며, 이 가능성을 건설적으로 성취하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인다고 보았다. 즉 인간 존재 속에는 완전한 발달을 향한 자연적 경향성, 다시 말해 실현 경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실현 경향성이 인간 행동의 모든 동기의 원인이 되는 유일한 동기라고 보았다.

정신분석학은 인간을 결정론적 존재로 가정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둔 불교 인간관과 대조

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욕망에 따라 동기화되는 것으로 보며, 출생부터 5세 사이의 어린 시절에 경험한 무의식 속에 잠재해 있는 심리 성적 사건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고 있다.

인간이란 단순히 물질로만 이루어진 유물론적인 존재가 아니요, 신에 예측돼 신의 손에 좌지우지되는 피조물도 아니며, 운명에 의해 결정된 피동적인 존재도 아니다. 인간 스스로의 의지적 행동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며 운명조차 스스로 만들어 나간다.

초기 행동주의에서는 인간을 기계론적이고 결정론적으로 보았다. 인간은 환경의 자극에 대해 반응하는 유기체로, 좋지 못 나쁘지도 않은 상태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

부처님이 태어나자마자 외쳤다. '천상천하유아독존(天上天下唯我獨尊)'이라는 말에서 엿볼 수 있듯 인간은 각각이 고유한 존재이며, 깨달음을 이루어 생사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존귀한 존재이기도 하다.

인간의 행동 또한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학습된 부정적 또는 긍정적 습관으로 구성된다.

인간에게 일정한 한계를 지워둔 상담심리학의 인간관과,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둔 불교의 인간관은 이렇게 사뭇 대조된다.

후기에 와서 행동주의는 인간관을 수정해 나갔다. 인간이 자기 조절 능력이 있으며, 인간의 행동은 부분적으로나마 환경을 창조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인간의 자유

■ 불교상담개발원 사무총장



그림 : 문병성

한입에 소옥~ 불교 상식

참회(懺悔)

"지나간 허물을 너무치고 아주 곱아서 다시는 짓지 않겠다"는 결심이다. 허물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중요한 것은 허물이 있으면 너무치는 것이다. 즉 허물이 있다면 바로 이것을 행하고, 나쁜 짓을 저질렀다면 부끄러워하며 곧바로 고쳐서 스스로 세

롭게 해야 한다."

제1회 불교어린이지도사 필기고사에 나온 문제다. 정답은? '참회(懺悔)'.

이 문제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 '나쁜 짓을 저질렀다면 곧바로 고쳐서 스스로 새롭게 해야 한다'는 진정한 참회의 의미를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불교의 참회는 흔히 개인신의 회개(悔改), 천주교의 고해(告解) 등과 비교되기도 한다. 개인신에서 말하는 회개는 '죄악으로 가득 찬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복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천주교에서 말하는 고해는 '세례를 받은 자가 사제에게 죄를 고백하

여 용서를 받는 의식절차'이다. 고해성사를 통해 자신의 죄를 고하고 사제로부터 용서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종교마다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인정하는 방법이 있다. 불교의 참회는 '회개' '고해'와 개념이 약간 틀리다. 단순한 반성과 죄를 인정하는 것은 참회의 본질이 아니다. 참회는 반드시 반성과 더불어 근본적인 잘못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다. 반성만 한다면 그것은 참회가 아니다.

진정한 참회란 반성과 더불어 부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며 한 번 저지른 잘못을 다시 반복하지 않는 자신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강자연 기자

정해년 경신도통으로 천하를 다스리는 비법인 태을경과 옥추경 해석을 운명과 바꾸어 출세와 성공에 감춰진 비법을 얻는 운수대통 경신 대법회

생명의 근본은 태식이 있고, 운명과 수명은 내마음지리에 있으며 생노병사 해탈법은 경신 도통에 있느니라.

전생병의와 증음신 해리의 잡신으로 병의된 영이 나가면 더 큰 신이 들어오는 것을 회원상생할 수 있는 경신도통은 전생으로부터 병의된 영자들은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천도, 기도, 회면, 구 등 방편으로는 광명천으로 그냥 보낼 수 없으며 광명천으로 보내는 진법계 도법의 주문은 있으나 그 누구도 알지못하므로 경신도통을 하지않고는 하늘이나 땅이나 일체 조상 병의영가들이 광명세계로 천도되어 가는 주문을 모르기에 경신이란 귀신우두머리신이므로 모든 병의신 증음신 해리신 병마귀신 잡신 천신 만신 구광신 모든신들을 하늘나라 불사신 광명천으로 경신일 자시에 불러모아 경신일 정오시에 영산대계 별패로 회원상생시키는 천지대도법이 무자천서와 혈단법이 도통경인 것이다.

● 경신도통이란??
생노병사를 초월하는 법이며 신을 받아도 안되고 치료해도 안되는 잡신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병을 제도 해탈하여 자신도 구하고 중생도 구제하는 수행법인 것이다.

정해년 경신은 출세와 명에 경쟁에서 이기고 국가에 문관 무관 관록을 얻어 진급 및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자신이 경영하는 총수가 되려면 경신도통 특별기도 동참으로 경영사업, 결혼 못한 가정, 고시합격을 못한 가정, 생남발원, 건강 부귀 장수는 물론 모든 소원과 한가지 소원을 얻는 기도인 것이다.

특별 경신도통을 하여야만이 무병도통으로 초능력자가 되는 것이다. 전생병의와 해리로 고통받고 증음신과 삼사구중으로 육신의병, 정신의 병, 잡신에 병의된 병의제도법 특별 태일대사 직강

◆신장과 귀속들을 부려 말문과 글문과 도통고지들과 영통능력이 되신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특별 태을경과 옥추경을 강의하여 신장귀속들을 마음대로 부리고 다룰 수 있는 특별비법 전수 도법으로 얼굴에 광대뼈, 코뼈, 턱뼈, 등창고 및 몸에 균형이 자기피와 사주팔자가 맞아야 운명이 바뀌고 팔자가 바뀌어야 부자로 사는법.. 연에게, 예술계, 예뻐지고 싶고 젊어지고 싶은 지방생

경신도통 회
세 계 불 교 달 마 중 중 본 산

대한불교 전통조계종

본 종단 중지중풍에 뜻있는
종도 및 사암을 모집합니다
(행자 모집 함)

중 정 : 각암 대중사 부 중 정 : 해산
원로의장 : 청산 중양총회의장 : 정관
총무원장 : 능인 총무부원장 : 법진
사정원장 : 운암 포교원장 : 향운
교육원장 : 정도 미술연수원장 : 무성
감찰부장 : 무심 총무부장 : 정타
재무부장 : 진여 교육부장 : 명등
사회부장 : 도안 문화부장 : 혜명
호법부장 : 도천 규정부장 : 해운
사서실장 : 자은

▶ 총무원 : 경북 구미시 사곡동 670-1번지 전통불교대학 삼보선원
문 의 : (054)464-4725. 464-4735 010-6393-4752

부처님 탄생하신 나라에서 모셔온 달라이라마 예종림마 돌체 라마와 티벳님 8명

1.티벳님 조상 합동 천도재 뿌자
2.국제 보살계 (판차실라) 뿌자
3.마정수기 소원성취 뿌자

위 내용 법회 행사를 원하시는 사찰에 적극 협조 해 드립니다.

※만다라 또는 어떠한 물건을 팔지 않습니다

▶ 문 의 : (054) 535-1669 011-229-1068 / 016-9281-1666
▶ 후 원 : 한국불교 사암 총 연합회 해원 여행사